

'해방 후 한국인 식자층의 식민지배 인식과 關係史 구성의 변화'

김태웅 (서울대)

1945년 8월 15일 한국인의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탈식민화의 과제와 함께 신국가 건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냉전의 심화와 6.25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정권은 상이한 신국가 건설과 체제경쟁에 매진함으로써 탈식민화의 과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1950년대 대한민국 학계는 물론 교육 현장은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인해 오로지 반공과 반복 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과 교육에 치중하였다.

하지만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둘러싸고 식민지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식민사관 극복 문제가 서서히 학계를 비롯하여 식자층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 관계사 인식도 약화되어 개설서와 교과서 구성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후 냉전의 약화 속에서 동아시아사가 부각되었다. 이 발표는 대한민국 政局의 변동과 탈식민화의 과제가 상호 연동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동아시아사교육의 변화를 추적하는 글이다.

■ 김태웅 (金 泰雄 / KIM, Taewoong)

1984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1990년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 1997년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과정 졸업. 문학박사. 현직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전문분야는 한국근대사, 한국사회경제사.

주요 저작 :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6--근대편--”, 솔, 2003.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2012. “대한제국과 3·1운동”, 휴머니스트, 2022.